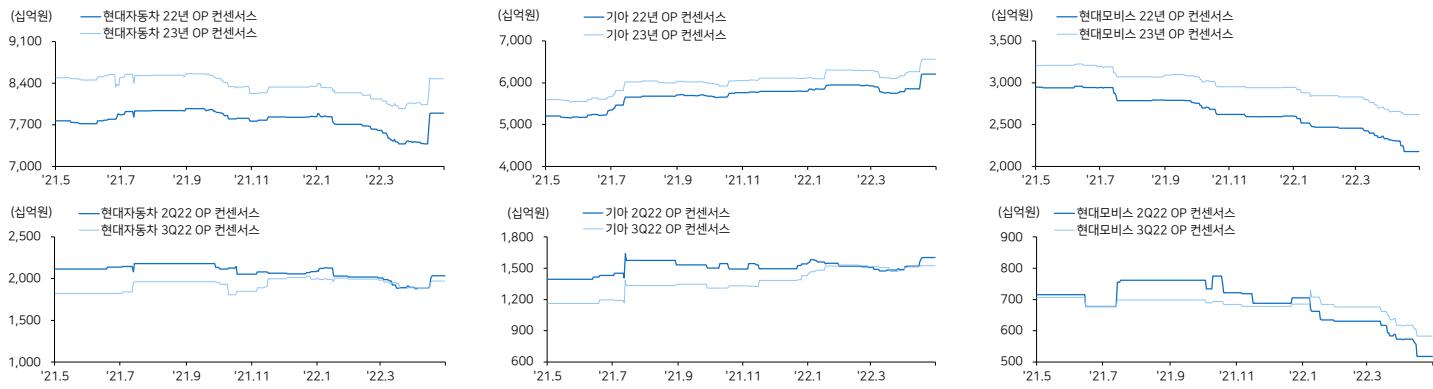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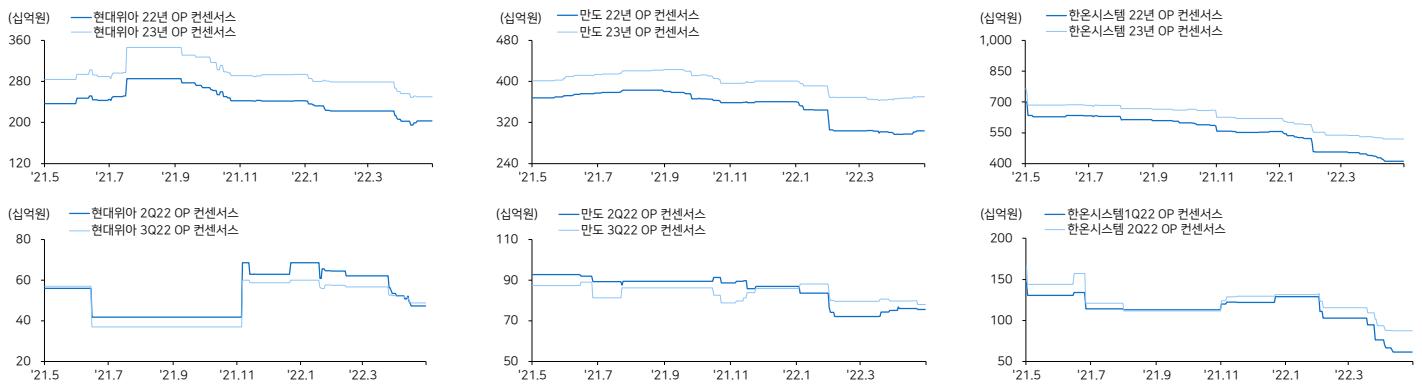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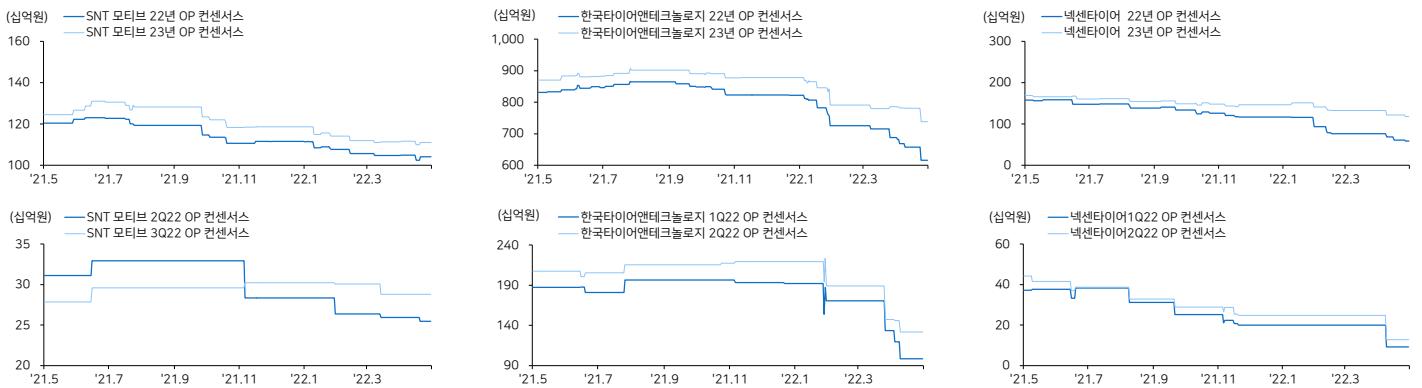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완성차 업체들 내연기관 자동차 사수 이유는 중국 (국민일보)

전기차에 옮긴다면, 완성차 업체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중국이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와 원자재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CATL 점유율은 지난해 32.6%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 <https://bit.ly/3weCaqv>

NFT에 빠진 자동차... '스토리·경험·기술' 담아 브랜드 알린다 (서울신문)

주요 완성차 업체는 NFT 시장에 진출하는 중. 릴보르그니니는 우주 실험 탄소섬유 소재 조각을 새겨 5개 한정 NFT를 경매로 판매했으며, 메라렌은 2012개 한정 NFT를 출시함. 또한 기아와 현대차 역시 한정판 NFT를 출시, 단기간에 완판됨. <https://bit.ly/3MkF1DZ>

Porsche SE says feasibility of sportscar maker IPO depends on market conditions (Reuters)

포르쉐는 올해 4분기 계획된 Porsche AG 상장 가능성에 시장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다고 밝힘. VW와 Porsche SE는 IPO를 위해 2월에 예비 계약을 체결했으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https://reut.rs/3FN2bAm>

Study warns of tight schedule to switch to EVs (Automotive News)

Mckinsey는 2030년 전기차로의 전환에 여전히 충전 인프라 건설이 매우 부족하고 지체함, 유럽에서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서 매주 10,000개의 충전기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됨. 현재 유럽 신차 등록의 EV 점유율은 8%를 차지함. <https://bit.ly/3yglg4n>

현대차 대형 전기차 GV90, 실내 공간에 '온돌' 깐다 (한국경제)

현대차그룹은 15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에 특히 출원한 '모빌리티 온돌' 콘셉트를 공개. 열전도를 활용한 전통적인 온돌 방의 난방 방식을 차량 실내 공간에 구현한 것이 특징. 2026년 양산모델 GV90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9lxB4Q>

Tesla exports another shipment of over 4,000 vehicles from Shanghai plant (CNEV Post)

기아 상하이는 상해 략다운에서도 생산이 지속됨에 따라 5월 11일 4,767대 수출에 이어 두 번째로 4,0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출함. 또한 상해 당국은 감염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5월 16일부터 단계적 사업 운영 재개를 추진할 예정. <https://bit.ly/3laIu8E>

Nissan says it is too early to predict EV unit spin-off (Reuters)

Ashwani Gupta Nissan COO는 "다양화된 시장&제품 포트폴리오 때문에 EV사업부의 분사를 고려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언급. 낫단은 지난 4월 분할 상장을 포함하여 EV사업분리를 위한 협력을 구상 중이라고 밝힘. <https://reut.rs/3lbxvzI>

Used-car retailer Carvana sees significant core earnings for 2023 (Reuters)

미국 온라인 중고차 업체 Carvana는 감소하는 수요 상황을 위해 광고 및 사업 확장 지출을 억제할 계획에 따라 2023년 긍정적 EBITDA 전망을 제시하면서 지난 금요일 장외에서 13.55% 상승함. <https://reut.rs/3MkFKVJ>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